

사회

“도로 확포장 공사로 농작물 피해”... 차일피일

“배수로 막혀 토지 침수피해 잦다”... 묵묵부답

잇단 민원 불감증 광산구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광산구 사호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모(62)씨는 지난 2008년 구청이 밭주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수년째 농작물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정씨는 진입로 공사과정에 시공사가 허락없이 자신의 일부 토지를 임시 도로로 사용하고, 아스콘과 시멘트 등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부터 토양이 오염돼 해마다 농작물

이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부터 광산구청에 공사로 인해 망친 밭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구청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에 확인한 결과, 정씨의 농토에는 아스콘과 시멘트 폐기물 등이 곳곳에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광산구 산막동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김경수(53)씨도 인근 500여m

가량의 배수로가 막혀 매년 자신의 토지가 침수 피해를 입자,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씨는 “밭에 심은 150구루의 나무가 말라죽어 배수로 정비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올해 가을쯤에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포장해 주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어 답답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안위 아파트가 밀집된 수완동 일대의 경우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년째 악취발생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원안마저 찾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박정수(48)씨는 “악취발생 민원을 매년 제기하고 있는데도 한결같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영무새같이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호동 확·포장건은 시공사와 합의에 이르는 등의 해결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주민의 억울함이나 불편이 없도록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굴삭기 운전 '시선집중'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대촌동 한 국가기술자격검정원에서 열린 굴삭기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감독관의 시범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옷가게·카페 '문열고 냉방' 버젓이

단속 첫날...광주 25곳 경고 조치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영업한 업소들이 잇따라 '경고장'을 받았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고장' 발부건수는 ▲동구 11건 ▲서구 2건 ▲남구 2건 ▲북구 4건 ▲광산구 6건 등 모두 25건에 달했다. 위반업소는 주로 의류매장과 카페 등이 몰려있는 동구 충장로 일대에 집중됐다.

경고장을 받은 충장로의 한 신발 가게 주인은 “출입문 개방은 매출과 직결된다. 월세가 1000만원에 달하는데, 문닫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북구 용봉동의 한 화장품 가게 업주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수로 문을 열어놨다”고 변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소들이 지난해 9·15 정전 대란을 겪었는데

경제 관련 대졸자

학자금 상환 유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 졸업생으로,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등을 받았거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환(암·심근경색·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준비서류나 상세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콜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eatur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sea and river water levels, and a 9-day weather forecast table.

강력범죄전력 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는다

범무부 확인절차 강화

범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범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이 영주

권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을 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외국인 단순노동종사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입국 후 범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남뉴스

“고리 원전 탓에 암 걸렸다” 주민이 첫 국가 상대 소송

이진섭-군도씨 부자

‘군도와 세상결기’로 유명해진 이진섭(48)씨와 발달장애 아들 군도(20)씨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온 가족이 질병에 걸렸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씨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탓에 일가족 3명이 암과 자력 등의 병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다고 2일 밝혔다. 이씨의 가족은 20년 넘게 부산 기장군 장안면·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km 안에서 살았다. 현재는 고리원전에서 5km 이상 떨어진 기장읍에 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큰아들 군도씨가 자폐를 앓는 것을 비롯해 이씨 본인도 지난해 5월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부인 박모(46)씨도 갑상선암에 걸려 지난 2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북구 매달 실시

광주시 북구는 올해 12월까지 매달 주민센터 찾아가 주민들에게 지방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방세 담당 등

8개 팀을 편성해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비과세, 할인 및 감면 기준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방세 자진납부 독려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 이용법, 인터넷을 활용한 납부방법 등도 설명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the text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Korea.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etc.), a list of regional branch phone numbers, and a website URL.